

- 2 예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Apocrine Carcinoma of Breast

- 2 Cases Report -

권계현, 박정자, 진소영, 이동화

순천향대학병원 해부병리과

아포크린 암종은 유방의 유관상피암종내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수는 있으나 아포크린 암종 세포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전 유방암의 1% 이하로 매우 드물다. 세포흡인 세포학적 검사에서 종양세포는 세포질이 풍부하며 미세한 과립성이고 세포질에 꼬리같은 돌기가 특징이며 이러한 세포들이 관찰되면 아포크린 암종과 아포크린 화생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아포크린 화생세포들은 주로 판상으로 배열되며 하나의 둥근 핵인과 세포질의 경계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비하여 아포크린 암종 세포들은 단독이나 겹치는 세포군집으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고, 불규칙하고 뚜렷한 핵인을 보이며 좀더 균일하며 연하고 분명한 세포질의 경계를 보인다. 저자들은 최근 세침흡인세포검사로써 진단된 유방의 아포크린 암종 2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며 이를 아포크린 화생의 세포와 비교하고자 한다.

증례 1은 37세여자의 오른쪽 유방 상측에 약 4×3.5 cm 크기의 유동성의 단단한 종괴가 촉지되었으며 불규칙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 유방조영술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원형의 방사성 비투과성 종괴였다. 세포흡인 세포검사상 세포들은 단독으로 군집 또는 판상으로 배열되었고, 부동핵은 둥글고 불규칙하며 호산성의 세포질은 풍부하고 미세과립성이며 불분명한 경계를 가졌다. 절제된 조직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크기 2.5×3 cm의 균일한 회백색 종괴로서 현미경 소견상 아포크린 암종의 소견과 전자현미경에서 암세포의 세포질에 단위막으로 둘러싸인 200~500 nm 직경의 전자밀도 과립 또는 빈 소낭들이 관찰되었다.

증례 2는 35세 여자의 왼쪽 유방에 촉진시 단단하였으며 유방 조영술상 경계가 불분명하며 원형의 방사성 비투과성 종괴로서 세포흡인 세포검사상 부동핵의 종양세포가 대부분이 아포크린 분화를 보였으며 절제된 유방에서 크기 3×3 cm의 연회색 단단한 종괴는 현미경 소견상 광범위한 림프관침범을 보이는 아포크린 암종이었다.

7. 유방 수질암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1 예 보고 -

Cytologic Finding of Medullary Carcinoma of Breast

- A case report -

김준미, 주영채, 황태숙*, 김영배*

인하대학교 인하병원 해부병리과 및 병리학교실*

유방의 수질암은 전체 유방암의 5% 미만을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서 유관암의 일종이

지만 통상적인 침윤성 유관암에 비해 예후가 좋다. 따라서 수술 전에 진단할 수 있다면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거나 예후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임상적으로 유방의 종괴를 평가, 진단할 때 흔히 세침 흡인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지만 수질암의 경우 세포학적 소견이 다양할 뿐 아니라 드문 질환이어서 보통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저자들은 좌측 유방에 발생한 수질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5세 여자로서 내원 1개월 전부터 좌측 유방 및 액와부에 간헐적 동통이 있었으며 10일 전부터는 좌측 유방에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하였다. 종괴 주변에 약간 붉은 색으로 피부 변색이 있었으며 압통을 동반하였다. 세침 흡인 검사상 성근 세포군집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구성 세포는 섬세한 세포질질을 가지는 중등도 크기의 악성세포로서 다양한 모양의 핵과 뚜렷한 핵인을 보였다. 비정상적 세포분열이 흔히 관찰되었고 자주 나핵(BPA6)이 있었으며 배경에 다수의 호중구와 약간의 백혈구 및 형질세포가 관찰되는 점이 통상적인 침윤성 유관암과 다른점이었다. 수술후 전형적인 수질암으로 확진되었다.

8. 유방의 세침 천자 세포학

조경자, 하창원, 고재수, 장자준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

유방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은 현재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조직학적 소견과의 상세한 대조 연구는 흔하지 않다. 1991년 10월부터 1992년 3월까지의 6개월간 원자력병원 해부병리과에 의뢰된 유방의 세침 흡인 세포학적 표본 290예 중 조직학적 진단이 이루어진 106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악성 종양 53예는 모두 침윤성 도관암으로서 그 중 37예가 명료하게 악성으로 진단되었고, 10예는 비정형성 세포 혹은 비정형성 상피 증식으로 underdiagnosis 되었으며, 6예는 표본이 부적절하였다. 검토 가능했던 36예의 악성 표본에서 그 세포학적 소견은 다소의 변동을 보였다. 세포 집단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가 26예였고 이 중 19예는 세포 배열이 성글었으나 7예는 매우 촘촘하였다. 10예는 가장자리가 둥글고 매끈한 일반적 선암의 소견을 보였다. 흩어져서 나오는 개개의 악성 세포의 빈도도 변화가 많아 15예에서는 현저하였으나 7예에서는 불분명하였다. 반면 세포충실성은 대개 높았으며 배경이 괴사성 및 출혈성인 예가 많았다. 이와 같은 다소의 차이점을 조직학적 소견과 연결시켜보기 위하여 종양을 조직학적으로 scirrhous, solid-tubular, papillo-tubular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해보았으나 scirrhous type 21예, solid-tubular type 13예 및 papillo-tubular type 2예에서 유형에 따른 세포학적 소견의 차이는 없었다. Underdiagnosis된 악성 종양 10예 중 5예는 변성이 심하였으나, 세포 성분이 많고 분리된 세포가 나오는 등 악성의 소견을 시사하고 있었다. 3예는 세포의 수는 적지만 상당한 이형성을 보여서 역시 악성을 시사하였다. 나머지 2예는 재검색 결과 악성 세포학이었다. 반면 53예의 양성 병변 중 11예가 비정형성 세포로 overdiagnosis 되었으며, 이 중 6예는 역시 변성 때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재검색 결과 양성 세포학의 특징인 이극성 나핵이 4예에서 관찰되었다. 3예는 확실한 비정형성 세포들을 보였고, 이들은 모두 상피의 증식을 동반한 섬유낭포성 질환이었다. 1예는 심한 염증에 동